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확립

익산시, 올해 우수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 정책 실효성 인정

익산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공공화된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익산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1년 344건에서 이듬해 291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30건 발생했다. 신고된 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2021년 74%에서 2022년 64%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 안전의 책임이 공공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며 발생한 효과로 풀이된다. 익산시는 2020년 10월부터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부분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익산시는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 보호 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이나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이 분담됐다.

2021년 1월에는 익산시 아동보호팀이 신설됐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동보호팀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 대응 기반을 조성했다.

학대 환경으로부터 분리한 피해 아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에 임대료 운영하던 피해 아동 쉼터(여아) 1개소를 신규로 설치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설장 A씨는 "그동안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때가 도래하면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안정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됐다"라며 "공공 아동 보호 체계가 아주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시는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해야 하는 미취학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문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피해 아동 3명이 전문 위탁가정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동반되는 복합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민·관 자원의 도움이 더해지기도 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가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진 민간 임대아파트 사태와 관련,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 중단 아파트 구제 대책 촉구

익산시, 입주 피해 주민과 함께 금융기관 방문 · 대출이자유예 건의

익산시가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진 민간 임대아파트 사태와 관련,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4일 신축 공사가 중단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관계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이자 납부 유예와 금리 조정 등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가 마련한 이 자리에는 시 관계 공무원들과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힌 입주예정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줄 것을 금융기관 측에 간곡히 요청했다.

입주 예정 시기를 훌쩍 넘기고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입주예정

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입주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이자까지 내야 하는 까닭에 입주예정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민원을 접수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찾아 미리 취합한 입차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력 체계를 마련, 공사 측에 입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상황에 입주예정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거 안정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 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군산항 · 신항 상생발전방안 모색 힘써

2023 군산항 · 군산새만금신항 정책토론회 개최

군산시는 5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2023 군산항 · 군산새만금신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군산새만금신항 개장에 대비 선제적 정책 발굴 및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토론회에는 관련 유관기관, 학회, 향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항만 통합 운영방안의 효율성'에 대한 발제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항만통합 운영 방안의 효율성 발제를 맡은 김형태 KMI 명예 연구위원의 인선 내항의 통합 TOC 사례를 통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통합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토론에는 좌장인 김창현 항만물류정책자문관을 비롯해 C대 한봉운 김근호 지사장 세방 강병수 부장 군산·대산 항만물류협회 이준

삼 사무국장, 군산시 장영재 경제항만 혁신국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항만이용자 측면에서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상생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상생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찾아가는 전문상담 2배 확대... 소외청소년 지원 강화

익산시가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전문상담을 2배로 늘려 소외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고위기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지원 및 자원연계를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가가 위기청소년을 학교와 가정 등으로 찾아가 정서, 가정, 학습, 진로, 성, 대인관계 등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시켜 건강한 성장을 돕는 복지서비스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전문상담사 5인이 한 팀이 되어 지난해 총

6,908건의 개인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연말까지 고위기청소년 등 1만3,000여건 상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역 협력 자원연계를 통해 심리개입뿐 아니라 생활 및 학업지원 등을 포함한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돕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전문상담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지원내용과 대상 확대에 전문상담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소외되는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받은 한 청

소년은 "학교에 가기가 싫고, 부모님과 대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상담사님을 만나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바로 뛰는 현장 전문상담 지원 확대에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신속대응

군산시가 연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로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관내 건축되는 연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등의 기술기준 적합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및 준공단계에서 사전 현장 기술 검사를 매년 600여건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법 제36조에 의거 건축 연면적 15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 정보통신설비 등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확보는 물론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건축

물 내 통신설비 구성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기존 검사항목뿐 아니라 최신기술에 대한 적합성 판단에도 신속·정확히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유선케이블(UTP)과 새로 도입되는 광케이블 검사 준비도 완벽히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공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서비스 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코로나19 백서 발간... 감염병 대응 앞장

익산시가 극복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백서발간으로 미래 감염병 대응에 앞장선다.

시는 5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백서 제자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보건소 2층 프로그래밍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력을 되짚고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한 백서발간의 최종 단계로, 시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수정 보완을 거쳐연말까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WHO 팬데믹 선언 이후 3년 6개월 후인 올해 5월 엔데믹 선언,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에 따른 일련의 과정과 시민들의 경험을 백서에 담았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고흥사랑기부체 1+1+1 이벤트 실시

익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례품 추첨을 통한 추가 담례품 기회까지 제공된다.

시는 고흥사랑기부체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을 대비한 1+1+1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익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담례품을 주문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추가 담례품(익산 날씬이요구부 5kg)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동안 고흥사랑기부체 사이트 또는 NH농협에 방문하여 익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담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22일 익산시 공식 SN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익산시 고흥사랑기부체 기부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이벤트를 통한 추가 혜택까지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